

과부의 두 렘돈

-열다섯 번째 이야기-



97Page

나 레 이 션 어느 날,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전에 갔어요.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. 많은 사람들 틈에서 한 부자가 으스스대며 앞으로 나왔어요.

부 자 으흠, 아~무거워라~

나 레 이 션 부자는 돈 주머니를 열더니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많은 돈을 꺼내 보였어요. 그리고 돈 주머니에서 얼마를 헌금함에 넣었어요. 사람들은 많은 돈을 헌금하는 부자를 보며 수군거렸어요

사 람 1 야야, 저 사람 봤어? 돈 진짜 많아~

사 람 2 헌금을 저렇게 많이 하다니~진짜 믿음이 좋은 가봐~

사 람 1 맞아 맞아,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큰 복을 주실거야~



98Page

나 레 이 션 부자가 지나간 뒤 아주 초라한 옷차림을 한 가난한 여인이 헌금함 앞으로 다가왔어요.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이 여인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어요.

여 인 내가 가진 돈은 이것뿐이네.. 그래도 하나님께 드릴 돈이 있어서 감사해~

나 레 이 션 여인은 정성스레 준비한 동전 두 개를 헌금함에 넣었어요. 여인이 드린 돈은 우리나라 돈으로 2백원~3백원 정도밖에 안 되는 적은 돈이었어요.



99Page

나 레 이 션 헌금함에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나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여인을 비웃으며 말했어요.

사 람 1 하나님께 드릴 헌금인데 어떻게 동전 몇 개를 드릴 수가 있어? 쯔쯔~

사 람 2 믿음이 진짜 약한 사람인가봐~

사 람 1 나는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, 부자처럼 많은 돈을 헌금 할거야!!



100Page

나 레 이 션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시는 분이 계셨어요. 바로 예수님이셨어요.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

예 수 님 처음에 헌금을 했던 부자보다 저 여인이 더 많은 헌금을 드렸구나.

제 자 아니, 예수님~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부자는 많은 돈을 하나님께 헌금 드렸고, 저 여인은 동전 2개만 드렸는데요~

예 수 님 그 부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많은 돈 가운데 조금을 헌금했지만, 저 여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.

.....
나 레 이 셴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세요. 헌금할 때 얼마를 했는지도 보지 않으세요. 다만,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, 우리가 얼마나 진실된 마음으로 하는지를 보신답니다.

